

지천명을 넘기고 만난 산행

글◻임장근(대한결핵협회 경기지부 검사사업팀장)

덕유산의 산그리메. 시인 송수권 님은 중첩하여 늘어선 산의 윤곽선을 '산그리메'란 말로 표현했다. 덕유산(德裕山·1614m)에 오르면 이 산그리메가 유난스럽다. 이 땅의 명산을 오르면 우리는 늘 중첩한 산그림자의 아름다움을 만난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한 달이 눈 깜짝할 새 지났다. 적지 않은 나이에 한 살을 더 보태면서 이제는 나 자신보다는 직장과 이웃을 위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다가서야겠다는 굳은 약속도 며칠, 벌써부터 이런 저런 일들로 마음의 갈등이 시작된다.

시간이라는 물줄기가 합쳐져 거대한 세월의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바다에 흘러들어 흔적도 없이 묻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다를 바가 없고, 시간이나 물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는 진리만은 영원하지 않은가?

매년 되풀이되는 다짐이지만, 올해에는 정말 직장과 이웃에 무언가 보람 있는 일로 한 해를 보내리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그래도 지난 병술년에 이룬 보람된 일이 한 가지 있다. 부부가

함께 '산'을 만난 일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작은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한 사건으로 기록된 일이 바로 주말산행이다.

주5일 근무제로 바뀌고 나서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 욕심에 2005년도에 사찰답사원으로 명찰을 순례하였다. 한 달에 2회씩 첫째 주는 동대문에서 출발하는 서울 모임, 셋째 주는 수원에서 출발하는 수원모임에 참석하였다. 명찰답사와 여행 겸해서 다녀보니 명찰은 명산의 명당자리에 위치를 잡은 것을 알게 되었고 조금 더 욕심을 내어 아예 명산순례로 마음을 바꾸었던 것이다. 그 전까지 산은 여름에 피서로나 그것도 계곡이 있는 산이나 찾는 수준이었다. 아니면 수원 근교 광고산에 시간이 될 때 오르는 정도. 홍천에 있는 사단수색대에 소속되어 군복무를 하는 동안 지긋지긋하게 오르내린 기억이 있어 산과는 좀처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러던 중 2005년 5월 말 경기불교문화원 사찰환경답사반의 설악산 봉정암 답사 1박 1일 코스에 참여하여 백담사에서 출발, 봉정암에 일박을 하고 소청, 중청을 거쳐 대청봉에 오르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산의 매력에 강하게 끌렸다. 사찰답사를 위해 산사에 가면 산 정상을 오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평소 가보고 싶었던 지리산 태극중주산행(무박 8월 14일)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모자라 못 오른 천왕봉을 10월 2일에 다시 오르면서 산의 품에 안기기 시작했다.

점점 산행에 대한 열정이 커져만 갔고 10월 8일 한계령을 들머리로 가을의 설악 대청봉에 다시 한 번 올랐다. 산행의 묘미를 혼자 즐기기가 아까워 10월 말에는 평생동지인 옆지기와 동행하여 월악산을 올랐다. 다행히 안사람도 수영으로 단련된 몸이라 산행을 잘 하였고, 25년간 함께 산 부부의 이십전십인지 산행의 묘미를 함께 즐기며 주말을 기다리는 초보 부부 산꾼이 되어갔다. 본격적인 산행을 나선 지 이제 1년 2개월 남짓. 그동안 설악산 대청봉, 오대산 비로봉을 비롯한 유명한 산들을 중심으로 50여개 산을 거의 매주말마다 오르며 초보 딱지를 간신히 면한 산악인이 되었다.

아직은 산에 대한 참 맛을 모르는 어설픈 산악인이지만 매번 산을 대할 때마다 새롭고 신선한 느낌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감격으로 다가온다. 뜬눈으로 이런 저런 운동을 해 본 나였지만, 자연과 함께하는 산행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베푼 신의 선물이 아닐까 한다.

산은 언제나 좋다. 혼자라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도 좋다. 산을 좋아하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에는 비로봉이라는 명칭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금강산 鹿盧峰(1,639m), 치악산 飛龍峰(1,288m), 묘향산 毘盧峰(1,909m), 소백산 비로봉(1,440m), 그리고 이 곳 오대산 비로봉(1,563m) 등이 그것이다. '비로'는 불교에서 '높다'는 뜻으로 쓰인다. '비로(毘盧)자나'는 모든 곳에 두루 비치는 부처의 몸의 빛을 뜻하며 '비로(毘盧)자나불'은 법신불을 뜻하고, '비로(毘盧)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신 법당을 말한다. 비로봉은 그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즉 최고봉을 가리키는 말로 전용되어 아예 그 봉우리의 고유명사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치악산의 비로봉 역시 최고봉이지만 음은 같으나 한자가 다르다. (2006년 12월 10일 산행)

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가도 좋다. 산은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한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어도 좋고, 더위에 지친 한여름이라도 좋다. 찾아오는 이에게 아름다운 빛깔의 단풍 맴시를 자랑하는 가을이면 더 좋고, 눈꽃이 만발한 겨울이면 더욱 매력적이다. 새벽이라도 좋고, 한 밤중이라도 좋다. 언제 어느 때라도 새로운 모습으로 그 자리 그대로 묵묵히 포근하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맞아 준다. 등산 인구가 꽤 많이 늘었다고 한다. 주 5일 근무에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경기가 어려운 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바로 산행이 아닌가 싶다.



2007년 1월 1일 지리산 천왕봉 해돋이

우리 직장인들도 이젠 점차 자신의 건강과 건전한 취미 활동에 눈길을 돌려야 할 때다. 각박한 현실에서 벗어나 풍요롭게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은 규칙적인 근무시간과 함께 빼앗겼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는 것이다. 날씨가 춥다. 꽉 막힌 실내에서 벗어나 시간 가는 대로 툭툭이 따끈한 도시락이 든 배낭 하나 둘러 메고 눈 덮인 산을 찾아 자연과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건강한 겨울을 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겨울산행은 산행의 꽃이라고 산악인들은 말한다. 제대로 된 겨울산을 맛보기 위해 설레는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